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차문화 2022 가을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2 Vol. 147

가을

茶文化



통권 147호 (사)한국차문화협회

생활 속에서 찾은 차인의 길



최연 방산서원에 배향

조선의 선비들은 참으로 운치를 즐겼나 보다. 책을 읽고 시 짓는 것을 일상적으로 했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시의 제목이 '밤에 배고픔을 느껴 장난삼아 짓다'란 시가 다 있겠는가.

최 연(崔演 1503~1549)은 조선의 중기 학자이다. 시문에 능하여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서·책문(策文)을 주로 담당하였고, 어제시(御製詩)에 항상 수석 또는 차석을 차지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그의 시문집인 《간재집(艮齋集)》에는 다양한 시가 실려 있다. '아우들에게 부침'이라는 시를 비롯하여 '운암원에서', '고요함 속에서', '화로', '차를 마심' 등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 '차를 마심과 '화로'는 차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차를 마심(飲茶)을 살펴보자.

한 사발 차잔에 거품이 가볍고 둥글게 뜨니 육우의 샘물에 숯불로 차를 끓여야 하리.

처음에는 맷돌에 찻잎 갈리는 것 기뻐하다가 곧이어 깨는 일어나 찻물 끓는 소리 들었네.

장을 적시는 효과 신속하니 세 잔을 들이키고 위를 데우는 공이 깊어 만금의 값어치가 있네.

어느새 두 겨드랑이 사이에 맑은 바람 일어나니 봉래산의 날아다니는 신선에게 달려갈 만하네.

다경(茶經)의 저자이자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육우(陸羽)와 당나라 시인 노동(盧仝)의 다가(茶歌)에 나오는 내용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차의 효용성을 잘 표현한 시다. 이처럼 조선의 선비들은 차를 항상 옆에 두고 생활했다. 가을이다. 가을은 인간에게나 자연에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들 한다. 이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일 것이다. 만추(晩秋)의 계절, 우리 모두 시인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격식을 맞출 필요도 없고,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최연의 시처럼 일상적인 것을 느낀 대로 적어보는 것 그것이 시인의 길이 아닐까. 차인 모두 이 가을 시인이 되어 보자. ☯

[표지 이야기]

어린이가 개울가에 장난삼아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색감이 다채롭다. 가을이 만들어 놓은 풍경은 그 자체로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이 가을 조용히 내 마음에 물감을 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소식지

2022년 가을호 (통권 147호) | 발행·편집인 최소연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편집부장 고만송
04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F. 02) 719-7815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茶文化

2022 Vol. 147 가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문화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인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6 특집 1 제59회 하계연수회 및 제20기 수료식
- 014 특집 2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실기시험 시행
- 020 특집 3 중국차티마스터 임원교육
- 030 협회 소식 | 정기이사회 / 제20기 대학원 차품평 / 규방다례 전통 약과 만들기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8 차문화의 성지를 찾아서 | 대원사 티벳박물관
- 042 고전에 길을 묻다 | 유득공 발해고
- 044 선조의 품격 | 가을, 감사의 차
- 048 건강한 삶 | 갯년기
- 050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56 찾자리가 있는 풍경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57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 090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097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098 우송료 명단

차문화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인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가을 들녘엔 황금물결이 일렁이고,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지난여름 불볕더위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의 섭리였나 봅니다. 그리고 보면 자연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0기 대학원 졸업식,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제59회 하계연수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21기 대학원 입학식과 인설차예절경연대회, 차인큰잔치, 규방다례 전승 공연 또한 협회 차원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철학이 글로벌한 보편성과 미래의 나아갈 길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문화 또한 그런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에 차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학교(school), 또는 학자(scholar)라는 단어는 모두 여가(skole)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여가는 남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한 여가를 통해 배우고, 공부하고, 삶을 관조한 것은 단지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항상 차가 함께 하였습니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에서의 '다반사(茶飯事)'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밥

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혼한 일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다반사의 다는 '많을 다(多)'가 아닌 '차다(茶)'자를 씁니다. 다선일향(茶禪一香), 다선일여(茶禪一如), 일로향실(一爐香室), 다반향초(茶半香初), 명선(茗禪) 등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하게 쓰던 말 중에는 차와 관련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듯 차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차는 건강을 위한 약리작용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는 명약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찾는 여가 문화로서 차문화는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차문화의 보편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와 언택트로 대변

되는 인공지능의 시대, 차문화는 새로운 대안이자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에는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중정(中正)이라는 상호존중과 글로벌 예절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차문화를 계승 발굴하여 세계인에게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이 몸소 실천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은 차인들에게 항상 '우리는 민간 외교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해외에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차문화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한 것을 보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협회는 차문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차문화가 찬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가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59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하계연수회 및 수료식 150여 명이 참석한 하계연수회 성황리에 마쳐



협회는 지난 8월 20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제59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하계연수회 및 제2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당일로 개최된 이번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하계연수회 및 제20기 수료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회원들의 건강을 우선해야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다.

지방에서 연수회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올라온 회원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생기가 넘쳤다. 하나둘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전수교육관은 삼시간에 회원들로 가득 찼다. 코로나로 인해 연수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지 햇수로 3년 만이기에 그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하계연수회 찾자리는 서울제2지부 회원들이 마련





신수길 차문화공예 평론가



김동근 학예연구사

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방에서 미리 올라온 회원들은 삼삼오오 차담을 나누며, 그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바빴다.

하계연수회는 12시부터 인천지부의 접수로 시작됐다. 12시부터 차례로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다. 전국 27개 지부에서 참석한 150여 명의 회원이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민달래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제59회 하계연수회는 국민의례, 선교차인에 대한 묵념, 인사말, 특강, 수료식,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햇수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되어 많은 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문화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이자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회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0기 수료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또 다른 출발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수길 차문화공예 평론가의 ‘차생활의 멋을 더하는 찻그릇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특강1이 열렸다. 신수길 교수는 “찻그릇의 분류와 명칭, 도자기로 된 다구, 좋은 찻그릇의 선택, 다기 관리와 보관 등으로 나눠 열띤 강연을 해 주었다.

특강2에서는 인천시 김동근 학예연구사의 ‘무형문화재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주었다. 특히 규방다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규방다례는 형태 구분에서 예능 종목(생활의례)이며, 지정



구분에서는 개인종목(보유자 최소연)에 속하며, 종목 내 등급으로는 1.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 보유자)로 구분하고, 2. 전승교육사, 3. 이수자, 4. 전수장학생으로 등급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 졸업식과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졸업식에서는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부회장이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했다.

폐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게 될 졸업생 여러분은 앞으로 협회와 차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원 배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하계연수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폐회사를 마쳤다. ㉞





1급



선서



2급



3급



중국차티마스터



화목상

- | | |
|-----|----------------------------------|
| 개근상 | 광주지부(4) : 노혜련, 박수미, 박점희, 주미경 |
| | 전남지부(1) : 정미경 |
| 화목상 | 전북지부(3) : 김금숙, 문정엽, 차명옥 |
| | 충북지부(2) : 정미영, 정운경 |
| 개근상 | 모녀 : 유지혜, 손혜란(전북) / 임미희, 길은혜(충북) |
| | 자매 : 김찬림, 김찬순(전북) / 김명례, 김명미(전북) |
| | 이종사촌 : 박수미, 김용한(광주) |



개근상



공로상



임원진



임원자격증



광주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전남지부



충북지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2급, 3급 자격검정 실기시험 시행 피나는 노력으로 모두가 좋은 성과 거둬



1급 26명, 2급 10명, 3급 12명 지원

협회는 지난 7월 23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2급, 3급 자격검정 실기시험을 보았다.

전국 지부에서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모인 회원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이번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실기시험 1급에 참가한 지부는 광주지부 7명, 서울제1지부 2명, 서울제2지부 2명, 인천지부 1명, 전남지부 4명, 전북지부 6명, 충북지부 4명 등 총 26명으로 지난 일년 동안 이날을 위해 준비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은 광주지부 2명, 서울제2지부 1명, 아산지부 2명, 인천지부 2명, 전남지



부 1명, 전북지부 2명 등 총 10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은 아산지부 1명, 서울제2지부 1명, 광주지부 5명, 전남지부 5명 등 12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규방다례와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실기시험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회원들은 실기시험 대기실에서도 연습을 반복했다. 각 지부의 지부장 및 규방다례 이수자들의 지도로 실기시험을 준비한 회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실기시험 장소인 인천시 전수교육관은 실기시험 전날인 7월 22일부터 인천지부 조영아 지부장과 이막동 전 지부장 등 인천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세심한 준비를 마쳤다.

자격검정 실기시험 장소는 대기실, 생활다례, 규방다례실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전국 지부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온 회원들은 삼삼오오 대기실로 모였다. 회원들은 한복으로 갈아 입고 개회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하나둘 모였다. 시간이 된 관계로 민달래 간사의 진행으로 개회식이 열렸다.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전승교육사, 차영민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 이림 부회장 등과 조영아 지부장, 이석예 서울제1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장, 박혜란 광주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장과 협회 임원과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소연 이사장은 “아침 일찍부터 지방에서 오시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연습한 것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오늘 자격검정 실기시험은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은 우리 차문화를 보급·계승 발전시키는 첨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쪼록 연습한 능력을 100% 발휘하길 바라며, 모두 만나서 반갑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민달래 간사는 참석한 자격검정 심의위원 소개와 함께, 일정을 공지한 후 바로 실기시험을 시작했다. 규방다례 심의위원은 최소연 이사장,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맡아주었다. 생활다례 심의위원은 차영민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 이림 부회장이 맡



규방다례 심의위원



생활다례 심의위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3급



았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다례와 규방다례로 나뉘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녹음이 짙은 여름의 한 가운데서 펼쳐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은 서울제1, 2지부를 비롯하여 인천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아산지부, 충북지부 회원 및 지부장이 함께했다.

특히 전북지부 김찬림 회원은 회원들을 위해 건강식품을 후원해 주어 실기시험을 보는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실기시험은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큰 불상사 없이 잘 진행되었다.

실기시험을 끝난 회원들은 그동안 고생한 것을 공유하며, 앞으로 차인으로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임원진



서울제1-2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아산지부



전남지부



충북지부

중국차티마스터 임원교육,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 중국차 전반에 대한 심도 높은 교육 이루어져



내 몸에 맞는 차! 좋은 차를 마시다

지난 7월 12일 협회 교육관에서 중국차티마스터 임원교육이 진행되었다. 협회 이해자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각 지역 지부장, 협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1교시 김태연 원장의 '보이차' 강의에서는 보이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보이차의 정의', '보이차의 선별 방법' 등 보이차에 대해 폭넓은 강연을 해주었다. 강의 중간중간 모차를 마셔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이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에 더해 건강을 지키는 효능까지 발휘하는 매력적인 차로, 차 마시는 것이 생활화된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보이차를 즐기는 차인(茶人)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차는 흔히 '월진월향(越陳越香)', 즉 오래 묵힐수록 맛과 향이 더욱 좋아진다는 말로 표현되듯이, 생산된 당시에 비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의 차맛과 차향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차의 가격 또한 점점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오래된 차라고 무조건 맛과 향이 좋은 것이 아니며, 잘못된 환경에서 보관되거나 억지로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차의 경우 오히려 독(毒)으로 변할 수 있다. 보이차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속여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상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차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내 몸에 맞는 차가 좋은 차라며 보이차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자사차호는 재료, 물, 온도 등이 중요

2교시에서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 서해진 대표로부터 자사차호 강의가 있었다. 서해진 대표의 강연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오후의 식곤증을 잊게 만든 강의에서 서해진 대표는 자사차호의 정의 및 발전사, 제작기법, 차의 발전사, 차의 예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약 5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보이차를 비롯해 다양한 차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의 맛을 좌우할 수 있는 자사차호에 대한 수업은 협회 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서해진 대표는 오랜 세월 중국의 차문화를 접함에 따라 자사차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직접 경험을 통해 습득했기에 생동감이 넘쳤다. 서해진 대표는 “차를 어떠한 용기를 사용해 어떤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 서해진 대표



종류의 자사차호에 우려 마시느냐에 따라 깊이 있는 차맛을 느낄 수 있다”라면서 “진정한 차 맛은 자사차호와 재료, 물, 온도, 디자인 등 이 모든 것이 맞아서 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자사차호를 직접 구경하고, 자사차호 재료를 볼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중국차를 마시며, 품평의 진수를 맛보다

3차 교육은 7월 20일 광주광역시의 남부대학교에서 열렸다. 협회의 임원진이 모두 모인 남부대학교는 모처럼 활기찼다. 특히 전남지부의 서난경 지부장과 서명주 이사가 마련한 점심은 말 그대로 산해진미였다.

뷔페식으로 마련한 점심은 정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았다. 특히 전남지부 교육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해 주어 협회 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남부대학교 교양교육원 아시아차문화연구회 이사장인 추민아 교수





남부대학교 교양교육원 아시아차문화연구회 이사장인 추민아 교수의 강의는 '차품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강의해 주었다. 차품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를 마시고 직접 느끼는 것이라며, 그동안 꼭꼭 숨겨 놓았던 품질 좋은 차를 개봉하여 모든 임원이 품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다양한 차를 마시며, 차의 유래, 차의 색, 차의 맛, 향 등을 직접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론과 품평을 동시에 해서 임원들의 학구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임원들 또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하였고, 질문에 추민아 교수는 성의껏 설명해 주었다.

이날 보이차 품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이차 감관 품평은 건차 품평, 표본 채취, 무게 측정, 우리기, 품평하기 순으로 구성된다. 첫째 건차 품평은 찻잎 형태, 부서진 정도, 색깔, 깨끗한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둘째, 표본 채취는 산차와 긴압차로 구분한다. 산차의 경우 대표성을 가지는



200~300g의 찻잎을 채취해서 균일하게 섞는다. 엄지, 검지, 중지 사용해서 찻잎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한 번에 집어 올린다.

긴압차의 경우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상·중·하의 세 층으로 분리하여 층마다 약 50g의 차 샘플을 채취한다.

이를 고르게 섞은 후 산차를 채취하는 방법과 똑같이 찻잎을 집어 무게를 단다. 우리기는 250ml의 품평배를 기본으로 한다. 100℃의 잘 끓은 물을 찻잎에 들어 있는 품평배에 따르고 뚜껑을 닫은 후 5분간 우린다.

우리기 시작한 후 순서에 따라 차례로 품평배의 찻물을 품평완에 따른다.

품평하기에서는 품평완의 탕색을 살펴보고, 품평배의 뚜껑을 살짝 열어 향기를 맡는다. 그 후 작은 잔에 차를 덜어 차맛을 본다.

마지막으로 품평배 안에 있는 찻잎을 엽저반이나 품평배 뚜껑에 올려놓은 뒤 엽저를 본다.

품평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설명한 추민아 교수는 다양한 차 품평을 위해 차를 우려 내 놓았다. 막간 황하(덕정현)를 비롯하여 대만오룡 금환, 독약, 차흔, 송종향, 육계, 익스트림 스페셜 스리랑카 FBOPE, 2015 숙병, 운남성 빙도 대엽종 20년산 흑차 등을 선보였다.

협회 임원들은 하나하나 맛과 향과 색을 비교하면서 알찬 수업을 받았다.



제1회 중국차티마스터 찾자리 열려

2022년 8월 4일 협회 교육관에서 제1회 중국차티마스터 찾자리가 열렸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여 차영민, 강정자,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과 전국 지부장,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히 열렸다.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된 찾자리이지만, 오전부터 찾자리를 준비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부장 및 임원들은 간단한 점심을 마치고, 다양한 소품과 장식으로 멋진 찾자리를 마련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녹차가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녹차가 주이며, 녹차를 매개로 한 우리의 차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차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널리 음용되는 차입



니다. 다른 나라의 차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완성한 다음에 중국차를 시작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찾자리를 마련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1조에는 이림 부회장, 서명주 이사, 서난경 전남지부장, 조영아 인천지부장이 준비한 중국차는 ‘03년 만전 숙병과 광동 우롱차 압시향’이었다. 숙병과 광동 우롱차 압시향은 몸이 냉한 며느리를 위해 마련한 차라는 스토리가 전하는 명차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은 차로 알려져 있다.

2조에는 김영애 순천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이막동 이사, 이광용 이사, 강희옥 감사, 최지원 이사, 이금숙 이사가 광동 오룡의 봉환단충(암시향, 개화향)2종을 준비했다. 개완을 사용한 찾자리 연출은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맛은 맑고 개운하며 뒷맛은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3조에는 최정희 이사, 이석예 서울제1지부장, 변명선 이사, 이기분 이사, 문차남 이사, 황미경 경남지부장이 보이차 4가지를 준비했다. 보이차는 흔히 할아버지가 만들어 손자가 먹는다고 할 정도로 숙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처럼 자연미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4조에는 강정자 부회장, 박광옥 부회장, 박숙희 부회장, 이명숙 이사가 목책철관음차(木柵鐵觀音茶)를 준비했다. 타이베이 목책에서 생산되는 청차류로 외형은 갈색이 돌며 녹색으로 말려진 구형



중국차티마스터_1조



중국차티마스터_2조



중국차티마스터_3조



중국차티마스터_4조



이다. 과일 향과 홍배한 훈연향이 동시에 나는 향기롭고 그윽한 차이다.

이로써 3일간 중국차티마스터 수업을 마쳤다. 3일 동안의 수업으로 중국차를 모두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우리 협회에는 외부 강사에 못지않은 수준 높은 중국차 전문가가 많다.

앞으로 한국차문화협회 고유의 중국차 행 다법을 연구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면서 격조 높은 중국차를 소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위드 코로나 후 처음으로 대면 정기총회 개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정

협회는 지난 6월 14일 3층 교육장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했다. 오전 11시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이림, 박광옥 부회장, 이석예 서울제1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장,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명숙, 문차남, 최정희, 이막동, 이광용, 강희옥, 노영숙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달래 간사의 사회로 진행했다. 민달래 간사의 개회선언, 성원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기나긴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조정 등 완화조치를 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만큼 활동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를 전승 발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연령 분포가 매우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의 기능적인 부분, 차는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꼭 마셔야 한다는 것을 교육했으면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교육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차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절 교육은 그다음에 차근차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규 회원들이 너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위주보다는 실생활에서 우리 차의 소중함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했으면 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국민의례,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했다. 안건 상정 및 토의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제25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 결과 보고, 7월 자격검정 시행 계획, 제59회 하계연수 및 졸업식 계획, 제21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계획, 제66기 지도사범 교육 계획, 행안부 공익사업 추진현황, 기타 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제25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에서 좋았던 점은 심사위원 간 피드백이 가능해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각 지부의 다법과 시연 준비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였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제59회 하계연수 및 졸업식은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당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아, 회원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제59회 하계연수 및 졸업식에는 신수길 차문화공예 평론가가 ‘차생활의 멋을 더하는 찻그릇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서울제2지부에서 찻자리, 인천지부가 점수를 맡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중국차티마스터에 대한 임원교육, 덩동유 협업, 지부행사 협회 보고 건으로 진행했다. ☎

서울과 광주에서 대학원 차품평 진행

협회 서명주 이사의 수업으로 차품평 마무리



서울 및 수도권 대학원생 1차 수업 협회에서 진행

협회 제20기 대학원 차품평을 2회에 걸쳐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했다. 지난 6월 4일 협회 교육장에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원생들을 위한 1차 차품평이 열렸다.

서명주 협회 이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대학원 차품평은 알찬 기획과 열강으로 대학원생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

첫 시간은 제다법 비교와 품평이라는 주제로 '차의 품질 평가 역사'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차 품질 평가는 중국에서는 지난 1915년부터 시작했고, 일본은 시즈오카현 등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차의 날부터 '올해의 명차'라는 이름으로 품평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에서 품평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차인연합회의 '올해



의 명차', 초의 차문화 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차품평대회', 보성 다향 대축제 '한국 명차 선정대회', 하동 '올해의 좋은차 차품평대회', 강진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 장흥 '장흥 전통 발효차 청태전 품질평가회' 등이 있다. 여러 지역의 품평대회는 차의 품질을 높이고 제다 기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차품평에는 다양한 형태의 품평이 있다. 차의 관능 평가에는 물의 온도, 맛 평가, 방법 등을 본다. 또한 차 우리는 시간, 차의 향기, 차의 맛 등을 차의 일지를 통해 적는다.

차의 일지는 일시, 장소, 참석자를 먼저 명기하고, 품평 규칙으로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다.

두 번째는 품평 도구 준비를 질서 있게 한다.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들은 직접 차품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2회차는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진행

차품평은 2회차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지부(지부장 서난경)에서 열렸다.

전남지부와 광주지부, 전북지부 지역의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남지부에서 차품평을 가졌다. 차품평은 1차와 마찬가지로 차의 역사부터 차품평의 순서로 진행했다.

전남지부에서는 서난경 지부장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품평 시간에는 품평 규칙, 품평 실습 시 담당자 명단, 관능 평가 방법 등을 기재 요령에 관해 설명해주었다.

차 일지에는 기본적으로 차의 외관, 찻물 색, 향



기, 맛, 우린 잎의 항목이 있어야 한다. 항목별로 5가지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 품평회가 진행됐다.

차의 색, 향기, 맛의 특징은 차 관능 평가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차를 평가함으로써 차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뒤임과 어떻게 살청해야 하는가 등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시는 차의 효능을 유지하면서 맛있고 향기로운 차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업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대학원생은 차 품평의 중요성과 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의를 맡아주신 서명주 이사께 감사함을 전했다. 🍵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규방다례보존회 방문

2022년 12월경, 대구 수성구에서 심포지엄 개최 예정



지난 7월 14일 대구 수성구청 관광과 소속 공무원들이 규방다례보존회를 방문하고 규방다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소개받는 자리가 있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한국 차 문화를 계통별로 규방다례, 궁중다례, 사찰다례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사적 의미와 특징, 다법을 탐구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 차의 원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조선 시대 반가의 규방에서 이루어지던 규방다례가 규방다례보존회를 통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어렸을 적 아플 때면 할머니께서 깊숙한 농에서 차를 꺼내 끓여주신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대구에서 다시 만날 기약을 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에서는 2022년 12월경, 한국 차 문화 원형 발견을 위한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본 행사를 통해 많은 차인들과 차문화 발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회원들과의 만남도 기대해본다. 🍵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약과’



협회 제20기 대학원 수업이 지난 7월 2일 아산지부(김태임 지부장)에서 열렸다. 제20기 대학원 종강 수업으로 진행된 ‘전통 약과 만들기’에는 전국 각 지부에서 모인 20여 명의 학생으로 교육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전통 약과 만들기’는 김태임 아산지부장이 맡아주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전통 약과 만들기’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생들의 열기와 강사의 강의가 빛난 수업이었다.

화학 첨가물이 없는 약과는 건강에 좋고, 맛도 있으며 귀한 찻자리 디저트로 손색이 없는 다식이다.

‘약과 만들기’ 프린트 용지를 한 장씩 들은 교육생들은 김태임 지부장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생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촬영을 하여 집에서 복습해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우기도 했다.



오전에는 반죽과 숙성을 하고, 홍두깨를 이용해서 반죽을 곱게 편 다음 비닐에 싸 숙성을 시켰다. 숙성되는 동안 김태임 지부장이 예약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면서 모처럼 동기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약과 모양내기과 튀김 시간을 가졌다. 원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고, 조촐을 입히느라 교육생들은 더위도 잊은 듯했다. 7월의 무더위 속에 약과를 만드는 차인들의 표정에는 배우려는 즐거움에 흠뻑 빠진 것 같았다.

김태임 지부장 또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연신 땀방울을 씻어내는 모습에서 교육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무척 흐뭇했다. ☺

한국에선 무명, 중국에선 신이 된 김교각 스님

한국의 차문화를 말할 때 김교각 스님을 빼 놓고 말할 수 없다. 차문화 역사에서 최초의 차시를 남긴 분이자 신라왕자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김교각 스님이다.



김교각 스님의 자취를 찾으려면 중국 안위성에 구화산(九華山)을 가야 한다. 지장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구화산은 중국 불교 4대 성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전남에 있는 대원사 티벳박물관이다.

중국 안위성에 있는 구화산 화성사는 우리 협회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 2002년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 최소연 현 이사장, 이해자 수석부회장 등 협회 회원들이 김교각 스님이 만든 구화산 화성사에 헌다례와 차시비 제막식을 주도하여 그의 업적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다섯 가지 생물자원을 가지고 갔다. 선청이라는 삼살개, 오차송이라는 잣나무종자, 조씨앗, 황립도라는 볍씨, 그리고 금지차라는 녹차씨앗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 3년(서기 828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차씨앗을 구해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교각 스님 연대를 보면 720년 24세 때 신라에서 금지차 종자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기록이 있다. 차에 관한 기록으로는 108년이 앞선다. 이는 후대 차인들이 밝혀야 할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당나라 시집에는 김교각 스님 시가 두 편 실려 전해지고 있다. 그 중 한 편이 차시이다.

절이 적적하니 너는 집 생각 하누나 나를 버리고 구화산을 내려 가려나
난간에 뛰어 올라 죽마타던 아이야 금모래 모으는 일도 이제 싫으나

칠병속 시냇물엔 밝은 달 찾아 올일 없겠고
차달인 단지에는 향긋한 꽃필일 없겠네
눈물을 거두고 조심해 내려 가거라 노승은 안개와 노을로 벗을 삼으리니



대원사 티벳박물관



한국과 중국 차인들이 김지장 차시비 건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장 차시비 제막식에 참가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회원들



한중 차인들이 차시비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이 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시이다.

스님이 호랑이한테서 구한 고아를 데리고 절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그 고아 아이가 절의 적막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스님이 시를 한 수 지어 마을로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전남 대원사 티벳박물관에는 신라왕자 김교각(김지장)기념관이 있다.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지장전을 건립하고, 김지장전의 3면 벽에는 김지장 스님의 일대기를 벽화로 그렸다. 신라의 왕자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을 만날 수 있는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전남 보성군 문덕면에 있다.

차와 해양이 만나는 곳 보성. 보성은 차로 유명한 곳이자 문화와 전통이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한다.

오리지널 김지장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구화산을 가야한다. 하지만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다면 신라의 왕자이자, 차인 김교각을 만날 수 있는 대원사 티벳박물관 내에 있는 김지장전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김교각 스님은 석지장, 김지장이라고도 불린다. 육신공양을 하여 지장보살(地藏菩薩)의 화신(化身)으로 불리는 김지장의 삶과 뿌리를 찾아보는 것도 차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한다. 차문화는 수많은 차인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를 찾아서 ‘발해고’

역사(문자)는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만큼 기록은 중요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옛날 우리나라는 한반도 북쪽 만주까지 호령하였다. 한반도만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불과 238년 전, 37살 청년 유득공은 발해가 우리민족이라고 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편집자 주>



유득공(柳得恭, 1748. 12. 24-1807.10.1)

잊혀진 제국 ‘발해’

조선의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서 검서관(檢書官)으로 일했던 37살 청년 유득공은 《발해고(渤海考)》를 집필하여 조선을 뒤흔들었다. 《발해고》가 발표되자마자 조선 사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선 사회는 한반도 바깥의 발해를 자국의 역사라 여기지 않았다. 기자 조선의 정통을 이어 받은 반도의 마한이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로 통일되었다는 성리학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득공은 이 같은 역사관을 뒤집었다. 《발해고》에서 유득공은 발해를 고구려의 후계자이자, 삼국시대 이후에도 신라와 발해가 병립했다는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했다. 이는 발해를 한민족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 이자, 한민족의 혁명적인 역사관이었다. 이후 《발해고》는 한치윤·홍석주·정약용·김정호 등 당대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이들이 발해에 관심을 두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근대 이후에는 신채호·박은식·장도빈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일제 식민사학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데 필수적인 저서로 《발해고》를 꼽았다.



발해고



발해에서 출토된 유물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 ‘발해’

‘남북국시대론’이라는 것은 발해사도 한국사에 넣어 발해를 ‘북국(北國)’으로, 통일신라를 ‘남국(南國)’으로 부르자는 주장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로 전개되는 종래의 역사 체계를 벗어나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한국사에 포함하자는 논리이다.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大祚榮)이 고구려 장수였고, 주체세력도 고구려 유민들이었으므로 결국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가였다는 데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국시대론이 학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조리 있게 전개된 것은 1784년 유득공(柳得恭)이 엮은 《발해고》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유득공은 “고려가 발해 역사를 편찬하지 않음으로써 그 국세가 떨치지 못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한반도의 남부를 차지했으니 그것을 남국으로, 고구려가 망한 뒤에 그 후예가 그 땅 위에 발해국을 세웠으니 그것을 마땅히 북국으로 하는 역사 체계를 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려 왕조의 잘못이라고 적

었다. 특히, 그가 아쉬워한 것은 고구려 영토가 여진과 거란에 점거되었어도 그 땅을 되찾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니, 이는 고려가 발해사를 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발해사

238년이 흐른 오늘날, 발해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부활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항해 우리 민족의 주요한 역사적 실체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해는 온전하게 우리 역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발해 역사의 객관적·실증적 연구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발해고를 통해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되새겨 보고,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 고전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전에서 우리의 역사를 찾는 기쁨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마음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의 뿌리를 찾는 《발해고》 일독(一讀)을 권한다. ❹

가을, 감사의 차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부회장,
충북지부장



가을이다. 기록적 폭우로 숨 가쁘게 하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 속에 나를 담아보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이 되었다. 후끈한 열기로 달아오른 아스팔트 속 땀방울로 끈적했던 여름은 가을의 청량함에 밀려 어느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늦가을

시인 김지하

늦가을
잎새 떠난 뒤
아무것도 남김 없고
내 마음 빈 하늘에
천둥소리만 은은하다.

김지하 시인의 시「늦가을」이다. 가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듯하면서도 무한한 사색으로 가득 차게 한다.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은 창간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은 이상향을 꿈꾼다. 뜻과 기개가 융혼한 사람일수록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이상향을 더욱 그리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도를 닦아도 깨닫지 못하던 것도 대봉(大鵬: 장자의 소요유에 실린 매우 큰 상상의 새. 매우 위대한 사람을 비유) 같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이규보는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서로 자신을 잊고 의기가 맞아 은둔 거사가 되어 차를 나누며 즐거워한다.

백운 거사 이규보는 고려 중기의 대문호로 호탕하고 활달한 문장으로 당대를 풍미한 명문장가이다. 시, 술, 거문고를 즐겨 삼혹호 선생이라 자칭하기도 했다. 그의 저서 《동국이상국전집》에 실린 시 <다시 화답하다(復和)>를 통해 그 깨달음의 도를 엿볼 수 있다.

夜深蓮漏響丁東
三語煩君別異同
多劫頭燃難自救
片時目擊總成空
厭聞韓子題雙鳥
深喜莊生說二蟲
活火香茶眞道味
白雲明月是家風
生師演法機鋒銳
禦寇乘冷骨肉融
邂逅忘形聊得意
不慙當日老龐公

밤은 깊어 승방의 물시계 시각 알리는 땡그랑 소리
그대여 번거로워도 세글자(三語)로써 차이를 말해주오
오랜 세월 정진했어도 스스로를 구하기조차 어렵건대
문득 그대를 보고 나니 모두가 허사였구려.
유가(儒家)인 한유의 이조부(二鳥賦)는 싫증이 나고
장자의 소요유(이충설二蟲說)는 내 취향이라오
알맞은 불에 달인 향기로운 차는 도를 일깨우는 참된 맛이요
흰 구름과 밝은 달은 바로 나의 가풍이었소
생공(生公)의 법설은 예리하고 날카로우니
어구(열자列子)가 바람을 탄 듯 시원스레 육신이 해탈되누나
우연히 만나 신분에 구애 없이 서로 뜻을 펼치니
오늘 우리는 방덕공(龐德公)에 부끄럽지 않구려

이규보는 화답의 시를 지었다. 그는 산사에서 밤이 깊은 것도 잊고 도의 깨달음에 몰두했다. 오랜 깨달음의 집착 속에서 문득 종소리에 놀란 듯 마음이 열렸는데 누군가를 만난 것이다.

불가의 도조차 공(空)이니 깨달음도 공이요 현상도 공이다. 공은 괴로움과 즐거움(苦樂)도 없고 유무(有無)도 없으니 오랜 세월 도 닦은 것도 모두 허사이다(多劫頭燃難自救 片時目擊總成空). 임금 앞에 나가 벼슬하는 것도 싫고(厭聞韓子題雙鳥),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나 즐기며 인생을 관조하고 싶다.

이 시는 도가적(道家的) 시어(詩語)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삼어(三語)'라는 말은 핵심만 나타내는 최소한의 말을 뜻한다. 그 유래는 진나라 죽림칠현의 한사람인 왕융(王戎)이 완첨(阮瞻)을 처음 만나 성인(聖人: 공자)의 가르침(名敎)과 노장(老莊; 노자, 장자)의 차이점을 물었는데, 완첨이 "아마 같지 않을 것이다(將無同)"라고 대답하였다. 왕융이 깊이 감탄하여 추천하여 관속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세 마디 대답으로 얻어진 연(三語掾)'이라고 한 고사(故事)에서 비롯되었다.

이충설은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조그마한 매미와 비둘기가 어찌 큰 봉새의 뜻을 알겠느냐 한 논설을 가리킨다. 이 세상은 매미와 비둘기처럼 스스로의 무지와 무력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위대한 자를 비웃고 있다는 말로, 여기에서는 장자의 사상이 유가의 사상보다 더 구미가 당긴다는 의미이다.

'생공(生公)'은 《오군제산록(吳郡諸山錄)》에 양(梁)나라의 고승(高僧) 도생(道生)을 말한다. 그가 소주(蘇州) 호구사(虎丘寺)에 있을 때, 돌을 모아 놓고 설법하자 돌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을 생공에 비유하였다.

'어풍(御風)'은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의 나오는 '열자(列子:도가(道家) 사상가)가 바람을 타고 다녔는데 시원하고 좋았다. 한번 떠나면 15일 만에 돌아왔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방덕공은 후한 말의 은사(隱士)로 제갈량과 함께 복룡(伏龍) 봉추鳳雛라고 일컬어진 인물이다. 유표(劉表)의 간절한 요청에도 끝내 응하지 않고서 처자를 데리고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다 생을 마쳤다.

삼국시대 위(魏)의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이었던 완적(阮籍)은 〈영회시(詠懷詩)〉에서 "작은 비둘기는 뿔나무나 느릅나무까지 날고 해조는 천지까지 날아간다"라고 했으니, 이 세상은 매미와 비둘기처럼 스스로의 무지와 무력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위대한 자를 비웃고 있다. 《장자(莊子)》의 대붕(大鵬) 같은 그대와 이규보야말로 인생을 바로 보고 즐거움을 누릴만한 사람들이다.

'다도일미(茶道一味)'속에 밝은 달처럼 만물이 환히 보이니 도가의 품격이 그대로이다. 도생처럼 예리한 법설은 심금을 울리고 열자처럼 세속의 행복을 구하는 일은 이미 초연하다. '우연히 만나 서로 잊고 뜻을 펴니(邂逅忘形聊得意) 오늘 우리는 방덕공(龐德公)에 부끄럽지 않다(不慙當日老龐公)'라며 이규보는 도의 깨달음을 한껏 즐거워하고 있다. ☯

갱년기 우울증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차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67세 여성 A 씨는 요즘 가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 딸이 모두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좋은 직장 다니는 딸을 대신해 근처에 사는 손녀를 낮에 봐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는 않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울 게 없겠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손녀를 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기쁨 때가 더 많다가도 불현듯 자신이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나기도 한다. 퇴직한 남편은 취미생활 등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갖는 데 비해 자신은 여전히 가사 일에서 해방되지 못해 남편에게도 화가 늘었다.

중년 여성들이 호소하는 우울감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중년 여성들의 우울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울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뇌 속에는 감정과 생각,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다. 신경전달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게 되면 맥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분, 생각, 행동이 가라앉으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스트레스 없이 날 때부터 우울증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살면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취약한 부분을 자극해서 병이 나게 된다.

중년 여성의 우울증을 사회적으로 '갱년기 우울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조절에 관여해 우울증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갱년기는 인체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월경이 정지되는 전후의 시기를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겪는 '사춘기'라는 이름처럼 '갱년기'라고 이름까지 붙여준 것은 이 시기에 겪는 신체적 증상들은 때로는 치

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들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호르몬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온 조절과 기억력에 관여하고 뼈의 강도 유지, 질과 방광의 점막 보호,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앞서 말한 세로토닌의 감소뿐 아니라 안면홍조, 발한, 골다공증 등 각종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다.

'갱년기 정도 평가지수' 항목들 가운데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갑자기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기분이 처지고 쉽게 눈물이 나고 의욕이 없으며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과민한 느낌이 든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체 및 정신적 피로감을 느낀다 등등의 증상은 우울증의 증상과도 비슷하다. 그렇다고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을 갱년기라고만 쉽게 여기고 방치해선 안 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우울감을 느끼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수준이다. 퇴직,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과 질병, 노화 등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결과다. 또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불안 등 감정의 변화, 수면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해서 우울감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년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 갱년기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임을 여유롭게 생각하고, 무조건 잠을 자고 쉬기보다는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스스로 활력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데 술과 담배는 뇌를 약하게 만들며 오히려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에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우려 마시는 취미생활도 추천할 만하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보다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차를 마시는 것이 갱년기를 원만히 지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년 여성의 우울감이 치매 등 병적 증상이 아닌 폐경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 한다 해도, 장수 시대에 노년기의 삶의 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폐경 호르몬요법은 환자 개개인의 적응증과 치료의 목표, 나이와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시작한다. 여성호르몬 치료는 환자의 의지와 가치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서 정답은 없으며, 개별 맞춤치료가 필요하다. 60세 이하, 폐경 발생 10년 이내 갱년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최대한의 효과와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

선곡(仙谷) 다원

글_경남지부 지도사범 이미숙



황차黃茶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차탁에 오른 지 며칠 켜다. 가야, 이천년의 향기를 담고 있는 김해 장군차 시배지를 견학하던 중에 구입한 차다. 딱히 누구라 지칭할 수 없지만, 다담을 나눌 수 있는 벗이라면 황차의 새 포장은 황갈색 속살을 내보이며 활짝 열릴 것이다.

선곡다원은 경사가 심한 길을 한참 올라가야만 했다. 이런 곳에 다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을 더 올라가니 나뭇가지 사이로 건물이 보이고 이내 차밭이 눈에 들어왔다. 다원 원장님은 너른 채반에 찻잎을 넣고 있었다. 백차를 만들기 위해 햇볕에 건조 중이라고 했다. 마셔만 보았던 백차의 제다 방법을 단면으로나마 체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장님의 친절할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다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가 완성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깊고 은은한 맛을 우려낼 수 있을 터. 그 땀의 대가는 차의 값어치를 높일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

차 맛을 보여주겠다는 원장님을 따라 다실로 들어

섰다. 통나무로 만든 다탁이 길게 자리 잡은 다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차를 시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리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차밭은 다랑이처럼 비탈진 골짜기에 여러 층으로 겹겹이 조성되어 있었다. 마치 연녹색 물감을 찍어놓은 듯 어린 찻잎은 햇살을 받으며 한창 땅심을 끌어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겨우내 응축시켜 탄탄해진 씨앗과 눈 맞추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곳에서 비를 맞고 이슬을 마시며 자란 차를 음미하며 다원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원장님은 신선이 사는 골짜기라는 지명에 홀려 삶의 터를 다져왔다고 했다. 나 또한 한 생각에 머물러 이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해도 그 길을 따라 뚝뚝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는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 힘든 과정 중에 즐거움을 맛보고 때로는 성취감에 젖는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신선이 사는 골짜기라면 유유자적한 삶이었지만 지명과 달리 하루해가 짧도록 일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주인장이

었다. 거친 손으로 찻물을 따르는 모습이 바쁜 일상에 밀리듯 빠르게 움직였지만 환한 웃음만은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비탈진 차밭으로 들어서자 이랑마다 빼곡하게 내민 찻잎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층층이 일구어 놓은 차밭은 다실의 창을 통해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창문 너머로 본 차밭이 낭만적이었다면 다가와 보니 삶의 현장은 이랑마다 낯날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의 헛바닥처럼 날렵하게 내민 찻잎에서 생명의 힘이 느껴졌다. 지난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서야 피워낸 어린 잎이 아닌가. 새로운 생명의 발원 앞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행진은 무던히 이어져 왔던 것이다.

11월이 되면 차밭 위에 위치한 사택은 때때로 다른 세상이 된단다. 운무가 아랫마을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지붕 위로 흰 띠를 두른다고 하니 이것이 신선의 놀이터가 아니고 무엇이라. 그런 날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맛은 어떠할까. 신선이 되어 은은한 차향에 젖는 그런 날이 내게도 주어

진다면 주저 없이 달려가고 싶다. 기온 따라서 낮게 깔리는 차의 향기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면 말이다. 눈이 혼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마을에 비가 오면 눈 세상이 된다는 다원의 겨울 기온은 차단다. 강한 추위를 견뎌낸 차나무는 더 진한 차향을 품고 봄을 맞이한 것이리라. 황차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에 흠뻑 빠져있는 동안 기다리던 벗이 봄을 한아름 안고 왔다. 봄이 되면 햇차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썩떡이다. 끼니를 대신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가지고온 벗이 오늘따라 더욱 예뻐 보인다.

‘다미인’의 포장을 뜯는다. 물 끓는 소리에 문학기행의 한때가 찾아든다. 그 옛날 고려 충렬왕이 김해 금강사에 있던 아주 큰 산차나무를 보고 장군차라 명명했다던 바로 그 차다. 벗과 마주 앉은 다탁은 훈훈한 온정으로 가득하다. 쌀쌀한 날씨에 정까지 담아낸 황차 맛이 가슴을 한결 따뜻하게 채운다. 봄의 기운으로 들뜨게 했던 햇차가 오감을 혼돈다. ❶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실기심의회가 있던 날



글_광주지부 전문사범 박점희

7월 23일 토요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실기심의회가 있던 날 새벽 4시부터 분주한 몸놀림을 시작했다. 바쁜 와중 대학원 20기 총무라는 직책도 있다 보니 떡집에 다식 떡도 찾으러 가야하고, 토마토도 꼭지 따서 씻어 상자에 넣어 준비했다. 광주지부 소속이지만 사는 곳이 담양이다 보니 인천에 한 번씩 가려면 보통 잠은 포기하고 오가는 버스 안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힘들어도 차문화가는 날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왜 신이 나는 걸까?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없이 인터넷 강의로 하다가 그나마 잠시 잠잠한 틈에 5월에 한 차례 시작을 기점으로 이번은 전문사범과정 졸업을 앞두고 마지



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욱 떨림과 기대로 가득 찼다. 광주지부는 지부장님의 완벽한 성품 덕분에 퇴근 후 모여 밤늦게까지 연습에 연습하며 잘할 것이라고 나름 준비를 했어도 지부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순간 부끄러운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때그때 작은 것은 전수자님들께서 도와주셨지만, 최소연 이사장님의 매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 날카로운 지적들은 등줄기 땀이 저절로 흘러내리게 했다. 이날 날씨가 더워서 더 그런 건지 등줄기 땀범벅은 나뉘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전문사범과정 마지막 수업이고 교육과정으로도 마지막 만남이다 보니 정들자 이별이란 말이 새삼 와닿는다. 세계적으로 찾아온 전염병은 우리에게 빼아픈 고통을 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함께한 한국차문화협회 전문사범과정 20기 교수님들과의 인연에 깊이 감사드린다. 졸업식과 졸업여행 두 번 남아있는 행사도 무사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보며 대면 수업 때마다 열과 성의로 가르쳐주신 최소연 이사장님과 협회 규방다례 이수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졸업을 앞두고 지난 2년을 돌아보다



차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맛보다

글_인천지부 지도사범 박영옥

그저 차가 좋아서 차를 공부하고 싶어서 차문화협회에 문을 두드리고 기대와 재미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수업 시간이 마냥 기다려지고 교수님들, 지부장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많은 기대와 희망이 싸여 갔다. 차를 알면 알수록 질문이 많아지고 질문을 하면 이막동(전) 인천지부장님과 규방다례 이수자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새로 취임하신 지부장님도 질문하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공부하여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다. 너무나 좋은 분들 아래서 수업받는 것이 행복하여 시간 가는 것을 잊을 정도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지부장의 열정, 너무 그리워지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이제 더 넓은 차 문화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 그동안 보여주신 차에 대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사람들에게 차의 세계를 알리고 보여주며 더 깊은 차의 맛을 소개하고 싶다.

일본차, 중국차를 넘어서 우리의 차가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배

우고 익혀서 세계적인 차인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궁무진한 차의 세계에 이제 작은 점 하나를 찍은 느낌이 든다. 이 점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차를 즐기며 커피를 넘어서 차가 세계 속에 들어서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그동안 가르침을 주신 지부장님들과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만약, 차와 다식이 눈 앞에 있으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교육생 고영화

만약 당신이 향기로운 차와 맛있는 다식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어떠한 그릇에 담을 것인지에 관해 물음을 던지게 될 수도 있다. 먼저 차에 맞는 찻잔과 다식의 크기와 색을 맞추어 색과 모양을 떠올리며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접시를 내을 것입니다. 이를 일회용 용기나 손에만 묻지 않도록 음식을 냅킨에 싸서 먹는다면 포만감은 느낄 수 있지만 차와 다식을 온전히 느끼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각적인 감상입니다. 음식을 떠올리며 상상을 하거나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은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잠시나마 상상력을 통하여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내며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줄 것이며, 맛있는 음식에 대해 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냄새를 통한 후각적 효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길거리 음식을 통한 냄새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게 해 당신의 시선을 빼앗거나 입맛을 다시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각들을 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입안으로 음식을 넣어 즐기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입니다. 특별한 맛 또는 익숙한 맛을 통해 당신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아마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차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운 찻잔에 담긴 차, 좋은 향을 느낄 수 있는 차, 입안을 감싸 매료시키는 차. 저는 이러한 차의 매력을 알리고 사람들과 나누어 즐길 수 있는 티월드 코엑스 행사에 서울제1지부 다례체험 부스에서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국제차문화대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차와 다기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곳곳에는 차의 향기가 펼쳐지며 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범님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찻잎의 기원부터 제다 과정 그리고 쓰임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차를 시음해 보면서 처음 보는 다인들과 평소 사회에서 나누는 대화와 아닌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겪어왔던 일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곁들이면서 짧은 만남에도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따라 맛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에는 차의 종류에 따른 물의 온도와 함께 다구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 우리가 일반 주전자에 차를 우려낸 것을 마시는 것과 차에 어울리는 온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다관에 우려낸 차를 마셔보면 항상 마시던 차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제1지부는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 그리고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범님들의 시연과 강의를 통하여 교육생인 저는 어찌나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면 분명 차를 즐기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며 같은 차에도 물의 온도와 사람에 따라 다른 맛을 띄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잠시나마 방문하여



차를 즐겼던 사람이라도 충분히 접해볼 수 있었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다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며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하여 신경 쓰는 모습들의 열정을 몸소 느끼며 뜨겁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제1지부의 체험 부스의 운영을 위해 이석예 지부장님과 모든 사범의 이름들을 새기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 이러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사를 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

찾자리에는 있다

글·사진_서울제2지부장 박광옥

찾잔은 다양한 그리움을 담아 낸다
차를 마시며 다식을 보니
가율이 묻어 있음을 본다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그리운 사람들과의 찾자리가 많아진다
한해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자

찾자리는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차가 주는 기쁨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찾자리에는 있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사랑방 |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가나다 순)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전북지부 · 충북지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 규정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사진 중 인원 초과와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강원지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에 참여

아름다운 찾자리를 마련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

강원지부는 지난 8월 9일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전통 문화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문화 공간”이며, 명상과 사찰음식,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 차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문화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초대 관장 동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소개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강원지부 사범 및 교육생들이 명상 체험관, 사찰요리 체험관 프로그램 체험관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국 사찰 스님, 세종시 주민, 내외 귀

빈들에게 아름다운 찾자리를 준비해 소통하는 기쁨, 협동하는 자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부 지원 스님, 반금복 전문사범, 신용옥 사범, 해명 스님, 권송은, 윤석현 사범교육생, 회원들이 전통문화체험관 1,2,3층 모두 찾자리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식과 다양한 차들을 내어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부장 김미숙

글로벌 티 전문과정, 전문심화 과정 수료식

김미숙 지부장의 지도로 15주 과정 마쳐

지난 8월 10일 송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춘천시와 강원도 대학협력 발전사업의 하나였던 ‘글로벌 티 전문과정, 전문심화 과정’ 수료식을 했다. 그 동안 김미숙 강원지부장의 지도로 진행된 글로벌 티 전문과정과 전문심화 과정은 매일 7시간씩 15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송곡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일구 원장은 수료식에서 송곡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17명)과 학교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강원지부 사범교육생 해명 스님의 대금 연주와 성의순 사범의 책거리 케이크 떡을 준비해 격려와 덕담을, 김미숙 지부장이 정성스럽게 키운 차나무를 한 그루씩 선물로 수료생들에게 주었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시간 들로 늘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9월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국

가사업의 하나로 학점 은행제는 김미숙 지부장의 지도로 시행하게 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강원지부 파이팅입니다.



경 남 지 부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수업하다

역시 실전의 수업이 최고이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차로 배우는 인성교육 8덕목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프로그램에 강사로 마산 월포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도 차와 예절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알은 지식에 불과하여 교육 현장에서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부 사범회에서 강정자 협회 부회장님의 특강으로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를 수강하였습니다. 지부 임원님들과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교육 내용 등을 교육받으면서도 강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실력도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 일정이 정해지고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1~2학년 친구들과 방과 후 수업으로 2달간 9회에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배운 대로 하려는 정직한 고사리손, 질문에 대한 또박또박한 대답, 행다에 임하는 어린 친구들의 적극성에 매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좋아요! 그래요! 이뻐요! 멋져요! 라며 아이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했습니다. 역시 실전 수업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과의 9회차 교육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교육에 깨알 같은 지도법을 전수해 주신 강정자 고문님과 늘 교육을 지원해 주신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진행한 안영선 사범님과 수업을 도와준 사범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성차 교육에 관심 가지고 매번 아이들 챙겨 주시고 월포초등학교 하치권 선생님과 돌봄 담당 선생님께도 감사를 보냅니다.

글_전문사범 김둘자



지부장 황미경

차(茶)향보다 인(人)향에 취하다

- 차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다

저는 평소에 늘 차(茶)나 차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생활인으로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 어느새 중년의 모습을 보니 아쉬움만 더해갔습니다. 올해 초, 가끔 들러 차와 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창녕지회장님이 한국차문화협회를 소개했습니다.

지부장님과 통화를 하며 지인과 65기 사범 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걱정과 달리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사범님들의 모습에서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제다실습에서는 처음으로 찻잎을 따고 차를 덥으며 차향을 맡았습니다. 한발제다의 차밭은 나지막하게 되어있어 찻잎 따기도 편하고 차밭도 예뻐서 찻잎을 다 따고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술에서 차를 덥고 풀어 식히고 손으로 헤치며 차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차를 덥어서 건조하고 다시 술에서 마무리하여 마지막에 맛을 보며 녹차의 싱그러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생활다례를 먼저 배우고 규방다례는 처음으로 배웠는데 주인과 돕는 이는 물론이고 손님으로 앉은 사범님과 동기생들의 단아하고 얹전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학기가 다 지나면 제법 고운 모습으로 차를 우리게 될 저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지부장님과 사범님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 속에 몸이 힘들지만 즐겁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범반 선생님들도 늘 반가운 얼굴들로 수업에 만나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65기 종강식은 지부장님 차문화 강의 후 도에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범반 선생님 남편의 '여민요'에서 다식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자른 흙을 두드리고 퍼서 가장자리만 살짝 올린 긴 사각 모양인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일과 도예가의 손길이 지나니 매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완성된 접시가 기다려집니다. 요즘은 일과 중에도 틈을 내서 향기로운 차향을 맡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어쩌면 차향보다 더 좋은 인(人)향이 함께여서 더 마음이 좋은가 봅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박은화

광 주 지 부

2022년도 차(茶)로 배우는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 교육 시행

차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다



지부장 박혜란

광주지부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를 광주 본촌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례 체험으로 인성 8덕을 익혀서 실천하기 위함이었으며 예절, 배려, 협동, 존중, 책임, 소통, 정직, 효 등을 9회에 걸쳐 교육하였다.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은 긴장과 염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어서였을까? 할 정도로 진지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차예절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성의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행 다교육 전 실시했던 배례 교육은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임을 느끼게 되었고,

8덕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묻고 답하는 형식의 교육 또한 좋은 반응을 보였다. 행 다교육 전 잠깐의 명상도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이었으며 적극적인 모습들이 참 기특하였다. 행 다교육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의 마음이 훌쩍 자란 듯 보였을 때 흐뭇하고 뜻깊고 보람 있는 교육이었다. 본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은 지도자로서 더 노력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였고,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신 차도구 덕분에 어려움 없이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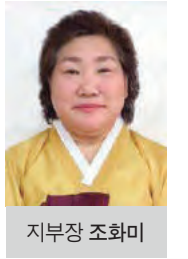
글_전문사범 최귀숙



교 토 지 부

선비다례 시연을 통해 큰 호응을 얻다

3년 만에 요시다 야마 대차회 열리다



지부장 조화미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요시다 야마 대차회’가 3년 만에 열렸다. 우리 교토지부는 ‘연꽃차’와 ‘선비다례’를 시연하였다. 2년 전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연근을 키우는 NPO 법인과 인연이 되어 백련(白蓮)과 한국 녹차로 차를 만들어 일본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농약 문제로 연꽃 쓰기를 주저해왔었는데 올해야말로 마음을 놓고 ‘연꽃차’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총 10회 차 시연회가 열렸는데 차권이 즉시로 매진되어, 차권을 구하려고 긴 줄이 생길 정도 인기가 대단했다. 손님들은 ‘차석차림과 대접하는 우리 교토지부 회원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였다.’라며 ‘차 맛이 세상 어디에도 맛

볼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로웠다.’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전통문화의 집약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번 우리 차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안겨주고, 문화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회로 지부에서는 큰 자부심을 품게 되었고 동시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갈 것을 결의했다.



대구경북제1지부

차문화 연구반과 기초교육으로 여름나기

차인들과 차담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다



지부장 박경숙

요즈음 거리두기 해제 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이 활기차졌다. 골목의 작은 카페들에도 손님들이 오간다.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듯하지만, 시장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외출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지부는 최대한 행사를 줄이면서, 연구반 관리와 기초교육생 교육을 하며 차와 함께 보낸다. 이런 시기에는 차와 함께한다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다. 매주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는 회원님. 모두 반가운 마음과 차 맛을 알아가며 차예절의 의미를 알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에 나름 보람을 느낀다. 오늘도 대구 날씨가 37도라고 한다. 참으로 무더

운 날씨가. 하지만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 시원하게 해놓고 행다 준비를 끝내고 회원들을 기다린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차담 시간을 기다리니 빙그레 입가에 미소가 나온다.

차와 함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고 확신이 든다.



서울제1지부

초기 다례교육의 중요성 깨달아

산현초등학생과 다례 체험 이야기



지부장 이석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예절 바른 습관을 몸에 익히면 평생을 예의 바르게 살게 됩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 미래의 주역들은 상호존중과 글로벌 매너를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인성예절교육과 다례교육을 산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다례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심성과 공중 도덕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의 교육으로 익히기에는 쉽지 않지만, 오랜 수업(9회 실시)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

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과 스스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끈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차 도구를 조심스레 다루면서 차를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몰입하여 자신만의 차 세계로 열어갑니다. 양증맞은 손으로 찻잔을 들어 자신이 우려낸 차의 향기를 맡으며 한 모금 입에 물고 오물거리는 모습은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고 기다리며 차 우리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에 너무도 뿌듯했습니다.

글_전문사범 최점순



2022년 상반기 종강식 가져 응급 심폐소생술과 종강식 함께 가져

서울제1지부는 지난 6월 25일 응급 심폐소생술과 상반기 종강식을 가졌다. 조용연 사범은 여름철 심정지 사고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해주었다. 특히 애니와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시 하임리히법을 연습할 수 있는 인형까지 어마어마한 점을 가득 싣고 오셔서 점심식사 이후까지 열띤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교육생 및 사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을 받은 누군가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거라 믿으며 열심히 강의에 임하였



습니다. 또한 “제25회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최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 서지민 사범의 수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노력이 성과를 이룬 매우 행복한 날, 코로나로부터 잠시 일상을 되찾은 날. 우리 서울제1지부는 몇 년 만에 여러 사범님들과 교육생들끼리 이날 점심으로 도시락에서 벗어나 “하심정”에서 곤드레솔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실로 오랜만에 서울제1지부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글_전문사범 송영아

이석예 지부장 향미분석 프로그램 특강 후각과 미각 능력 향상에 도움

서울제1지부 이석예 지부장은 “센톤 아로마 키트”를 활용한 향미분석 프로그램을 특강으로 준비하

셨습니다. 갈색 병에 담긴 아로마향의 정체를 열심히 찾아가는 여정, 차인이라면 후각과 미각 능

력 훈련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많은 향미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특강의 중요한 점은 내가 맡은 향에 대해 느낀 것과 샘플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유익하고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함께 잘 극복하여, 희망이 가득한 2022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글_전문사범 송영아



다레 시연을 통해 팀워크를 배웠다

- 국제차문화대전에서 다레 시연을 펼치다

초등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다레를 시작한 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끊임 없이 배우며 차예절대회를 참가하였다. 그런데 올해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차문화대전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를 대표하여 무대시연 제안을 받았다. 함께 다레를 배워온 동생들과 참여 결정을 하고 국제차문화대전과 같은 큰 무대시연은 처음인지라 기대도 되었지만 많이 떨리기도 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한 연습 중 시험이 겹친 학교생활로 5명이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았지만 밤늦게라도 만나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기도 했다.

동생들과 다 같이 시간 맞추어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태껏 대회 등에서 혼자서만 행다를 하다가 다섯 명이 동시에 무대에 서는 연습은 하나하나 행다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다섯 명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았다. 힘들고 지



쳤지만 다 함께 무대에 올라가는 색다른 경험에 관한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았다. 9년 동안 해온 다레이지만 단체로 합을 이루는 무대 시연은 우리에게 처음이었고 좋은 경험

이 되었다. 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글_봉영여중 3학년 김유정

전문사범과 지도사범과 함께 청차 시음

민북오룡, 민남오룡, 광동오룡, 대만오룡 등



서울제1지부는 지난 5월 28일 특강으로 청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음해 보는 시간을 전문사범 및 지도사범생들과 함께 가졌다. 청차를 많이 마셔본 사범들도 있었지만 특강은 지도사범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민북오룡 5대 명종과 민남오룡, 광동오룡, 대만오룡을 준비하여 시음하며 각자 느끼는 대로 표현해 보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6대 다류 중 산화발효도의 범위가 넓어 종류가 제일 많은 청차는 일반적으로 향기를 마시는 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나무의 품종, 생육환경, 채다 시기, 잎의 부위, 제다공정의 차이로 色, 香, 氣, 味가 확연하게 다른 차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산화발효도가 높아 묵직한 민북오룡, 상대적으로 낮은 상큼한 민남오룡, 향이 풍부한 광동오룡, 다채로운 대만오룡을 마시며 모두 다른 맛과 향기에 감탄했다. 청차들이 지닌 각각의 외형, 향기, 맛물

색, 우린 엽저들을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차를 느껴보고, 느낀 바를 표현하는 방법을 평가지에 기록을 해봄으로써 차를 조금씩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특강이었다. 다소 많은 차를 마시다 보니 특강은 5시간이나 힘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청차와 더불어 우리가 하동에서 제다 하였던 녹차와 지부에 보관 중이던 차화석, 꽤 고급스러운 금준미로 입가심을 하고 나니 모두 차에 취해 얼굴에 행복이 묻어있다. 아직 나도 차를 잘 모른다. 그렇지만 꾸준히 마셔오며 익힌 세월은 무시할 수 없는가 보다. 그리고 차를 시음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도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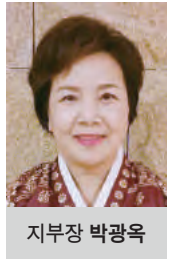
청차 특강에 많은 차를 제공해주신 차영민 협회 부회장님께 감사합니다.

글_지부장 이석예

서울제2지부

행정 안전부 차예절과 인성 8덕목

신현초등학교에서 차예절 수업



지부장 박광옥

행정 안전부 후원으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중랑구에 있는 신현초등학교에서 차예절 수업을 진행했다. 첫 수업 교실로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구 가방을 들고 한복을 입고 들어 오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어느새 시선 집중하고 예사롭지 않은 옷차림과 낮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모두 신기해서 쳐다보는 시선들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이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니 사랑스럽기만 했다. 처음 그들의 시선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왜 한복을 입고 왔는지, 처음 보는 다구 들을 보며 신기해하며 차 맛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며 작은 눈망울들이 반짝반짝 빛내던 눈빛이 생생히 떠올랐다. 차 도구의 명칭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무척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방석에 앉아서 몸을 비틀고 장난하며 손쉽게 만져보며 장난도 해보았는데 차의 정신과 예절을 알고 난 후부터 아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변화가 느껴

졌다. 우리의 전통차인 녹차에서 홍차까지 다양하게 접해 보고 맛보는 그런 시간들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성 8 덕목과 함께 하는 차 수업이었습니다. 어느새 선생님과 부모님께 예를 갖추어 바르게 인사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정직과 소통, 협동과 배려를 하고 자신의 존중과 책임을 다해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효와 예를 알고 실천해 보려는 아이들로 조금씩 변화해 가며 발전해 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보람을 느꼈으며, 행정 안전부 차 수업 프로그램이 나에게 올여름을 가슴 뿌듯한 8월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글_전문사범 조상숙



순 천 지 부

여수 광양지역의 교육복지사들의 차문화 연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서양의 차문화 등 테이블 매너 체험

지난 8월 12일(금)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여수, 광양지역의 교육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순천지부와 협업하여 “세계로의 차문화 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서양의 차문화와 그에 따른 테이블 매너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참여한 교육복지사들은 학교 현장의 교육 취약계층(저소득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방안으로 교육복지실을 방문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이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한 잔의 차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소통을 위한 테이블 매너,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더 멋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모두 입을 모았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접하면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한 잔의 차잔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본 하루였다.



지부장 김영애



“매 순간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국차, 일본차, 홍차 등 테이블 세팅 연출

순천지부는 지난 8월 9일(화)부터 순천시와 함께 “매 순간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이라는 주제 아래 매주 2회씩 10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우리 차의 이해와 그에 따른 테이블 세팅 그리고 중국차, 일본차, 홍차 등의 테이블 세팅 연출, 티푸드 만들기 및 진열하는 방법, 센터피스 만들기, 티파티 연출



등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차를 생활 속에 접목하여 응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멋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여름밤의 밥상머리 교육

2022 별 아래 반남 행복 학교
크리에이터 캠프 운영

순천지부는 지난 7월 22일(금) 나주 반남중학교에서 1박 2일에 걸쳐 “2022 별 아래 반남 행복 학교 크리에이터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펼친 풍요로운 반남 한마당 축제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각자의 창의성을 한껏 발휘하는 대견스러운 자리였다.



특히, 순천지부에서는 이날 밥상머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저녁을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식사 예절과 차문화예절을 직접 체험하고 익히며 매너 있는 반남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운동장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티,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 그 자체였다.

아 산 지 부

회원과 함께 찾자리를 가지다

연향에 취해, 모처럼 회원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다



지부장 김태임

작열하는 태양 아래 원색의 빛깔로, 은은한 색깔로,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들. 뜨거운 태양 빛을 견뎌내며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인내의 결실. 향기 또한 얼마나 그윽한가? 연꽃이 한창 핀 7월 말. 아산지부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신정호 정자에서 연차수업을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10여 명 넘게 만나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연꽃 찾자리를 마련했다.

아산지부 회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위생 생활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과 앞으로 지부 및 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름다운 찾자리와 함께 맛있는 점심밥도 함께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지냈다.



아산지부 관·계례(성인식) 행사 가져

지역의 향교와 유림회 등 참석

아산지부는 지난 5월 말에 순천향대학교 1, 2학년 남·여 대학생 10명을 아산시 3개 향교 전교님과 유림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계례(성인식) 행사를 진행했다.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관·계례 행사는 아산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의례이다.

김태임 지부장은 “이제부터는 성인으로서 덕을 지니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사회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며, 성년이 된 대학생들 격려했다.

학생들은 전통 의례가 다소 낯설었지만,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례를 치른 학생들은 성년이 되었으니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 천 지 부

사범교육생과 함께 짧은 여행을 가다

차로 맺어진 인연 오래도록 함께하길

종강을 마무리하고 소박한 여행을 떠났다. 긴 일정은 아니지만, 우리 회원들이 좋아하고 단합하고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마련했다.

차를 마시면서 흐뭇해하는 회원들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산뜻했다. 두 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었다.

보쌈, 생선튀김, 오이냉국, 과일, 떡 등등 이 모든 것이 6천 원. 점심을 맛있게 먹고 회원들과 함께 서해를 향해 출발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매향리는 밀물과 썰물을 잘 이용해야 한다. 썰물 때는 길이 만들어지지만, 밀물 때는 길이 바닷물로 지워지는 곳이다.

회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고동을 비롯하여 굴이 지천이었다.

우리는 회원들과 함께 망둥이 낚시를 했다. 하나씩 올라오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모처럼 힐링이 되었다.

사범교육생 모두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모두 참석하여 함께 했으면 한다.



지부장 조영아

인천시민들에게 선비다례 시연

인천도호부관아 달빛음악에서 가천대 대학생 시연

지난 7월 23일 토요일, (재)가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인천 시민들을 위한 '달빛음악회'가 개최되었다.

공연시간이 다가오자 거세지는 빗줄기로 당초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한 '달빛음악회'는 실내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었다. 달빛음악회 첫 무대는 규방다례보존회의 선비다례 시연으로 시작

되었다. 인천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인 최소연 이사장님의 교양강좌를 듣는 가천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선비다례 시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며 인천시민들 앞에 멋진 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 남 지 부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성황리에 마쳐

함평 나산초, 보성 회천초 등 5개 학교 50여 명 참여



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성 회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함평 나산초, 장흥 안양초, 여수 쌍봉초, 영광 염산초 등 초등학교 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안부 지원사업인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실시했던 찻상머리 인성교육 “우리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후속으로 진행된 것이었는데 작년 사업의 성과가 좋아 10여 개 학교에서 신청해와 자체 엄선했다 5개 학교에서 벌였다.

이번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프로그램은 행안부 공익사업으로 (사)한국차문화협회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찾아가는 인성교육의 성과에 힘입

어 세 번째 실시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실시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5개 학교 50명의 학생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철저한 개인 위생을 지켜가면서 수업에 임해 코로나19의 위험을 해결했다.

김애숙 교장(함평 나산초)은 “다문화가 많은 환경이어서 다도 교육을 꼭 시행하고 싶었는데 협회의 도움으로 숙원 사업을 이룬 것 같아 보람차다.”라고 말하고 “기회를 만들어 계속 다도 교육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황은미 교장(보성 회천초)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함평 나산초등학교



회천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염산초등학교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변화된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롭다.”라고 말하고, “다도가 학교 특색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 참여가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부는 총 18회에 걸쳐 10여 명의 전문사범과 지도사범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의 설문 조사를 확인한 결과 친구들과 인사를 잘하고 배려하는 마음, 협동 정신이 많이 생겼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다도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편지글과 다구에게 편지쓰기, 차에 관한 동

시 지어보기 등의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서난경(지부장), 김경자(전문사범), 위인숙(전문사범), 김은정(전문사범), 나혜영(지도사범), 김영숙(지도사범), 류석진(지도사범), 이경희(지도사범), 김숙(지도사범), 이정희(지도사범), 박소미, 고선영, 정미경, 추양미 대학원생 및 조화영(사범교육생)이 참여했다.

글_지부장 서난경

상반기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종강식 가져

너와 내가 없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

지난 7월 2일 전남지부는 2022년도 상반기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회원 2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무아차회와 오색찻잔 명상으로 이

루어졌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자신을 위로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한 성찰이 되었다. 이정희 지도사범(목포대 박사수료)의 리드로 펼쳐진 오색찻잔 명상은 1학기 동안 배웠던 차명상을 정리해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종강식 내내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날 종강식에는 코로나19로 교육생만 참석해 조출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나라 사범교육생(2022년 총무)은 “회원들 간에 협력이 좋아 너와 내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고 회원 모두가 파이팅하니 전남지부가 앞으로도 이 에너지를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난경 지부장은 작년과 다름없이 언택트와 남부대 평

생교육원에서 주 2회에 걸쳐 보강 수업을 진행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졌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조화영



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심의시행

남부대 평생교육원 교육생 등 10명 참여해



전남지부는 지난 7월 16일 상반기 “차문화 예절지도사 3급” 심의를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해자 수석부회장과 서명주 이사의 심의로 시행되었다. 이날 심의를 마친 교육생들은 “선배들이 힘내라고 간식과 합격 기원 물품을 챙겨 주어 감동이였다”라고 말하고 “생각보다는 긴장감이 더하다며 방학을 통해 실기 연습을 추가하는 자체 모임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에는 남부대 평생교육원과 담양 명가해 교육생들이 참여했으며, 박소미(대학원생), 정미경 대학원생, 박인숙, 김나라, 조화영 사범교육생이 지원해 주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김나라

전통문화 체험 마당 · 성년례(계례) 참여

광주 문정여고 12회째 실시

전남지부는 지난 5월 23일 “전통문화 체험 마당”의 일환인 계례 체험을 광주 문정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3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전통문화 체험 마당”에서는 강당과 각 학급에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강당에서는 서난경 지부장을 큰손님으로 초대해 전통 관혼상제에 관한 이야기와 큰절, 평절 익히기, 약식 계례 체험이 이루어졌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서는 전통 성년례(계례)를 위해 전남지부의 13명의 지도사범과 전문사범 및 교육생이 참여해 성년례를 위한 사전교육으로 행다를 통한 다례교육을 지도했다.

문정여고에서는 매년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계례)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희망자에만 한복 입기 체험과

약식 계례를 치르게 되었다.

큰손님으로 초대돼 계례를 주관한 서난경 지부장은 “성년례는 전통 예절의 사례(四禮:冠婚喪祭) 중 하나로,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성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 참여와 책무 부여를 의미하고 있는 행사인데, 의식보다는 체험 위주로 변해 가는 게 현실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년례에는 김경자, 위인숙, 나혜영, 이경희, 박숙희, 김숙, 이정희, 박소미, 추양미, 고선영, 류석진, 박선희 사범과 조화영 교육생 등이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글_지도사범 류석진



장흥 “청태전 품질평가회” 참가

매끄러운 진행 돋보여

전남지부는 지난 6월 22일에 장흥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장흥 전통 발효차 청태전 품질평가회’에 품평 진행을 맡아 새로운 분야에 장을 열었다.

이번 품질평가회는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의 품질 향상과 다원들의 청태전 품질 인증을 위해 추진했는데, 12개 다원이 출품한 1년 이상 발효 청태전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항목은 5개 항목으로 외형, 찻물색, 향기 등으로 관능검사를 하며, 평가등급은 4단계로 특급(95점 이상), 1급(85점 이상), 2급(75점 이상) 등 외로 나뉘었다. 심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평 진행위원들의 실력과 노련미가 중요한데, 전남지부 회원들의 명쾌한 진행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품평위원으로 참석한 위인숙 전문사범(청태

전보존회 총무)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청태전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다시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지속적인 청태전의 발전 및 연구가 이루어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명성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난경 지부장은 “청태전과 전남지부의 깊은 인연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 지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떡차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태전 홍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회원들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품평 진행을 무리 없이 이끌어 주어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진행위원에는 곽소영(남부대), 김정자, 위인숙, 이정희, 이경희, 조화영 회원이 참여했다.

글_지도사범 이정희



국제 차 & 티 푸드 박람회 참여

녹차, 가루차 행다 체험 도와



광주 국제 차 & 티푸드 박람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0여 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펼쳐졌다. 이번 광주 국제 차 & 티푸드 박람회에 전남지부는 전통차 찻자리, 생활차 행다, 가루차 행다 체험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평 받았다.

25일에는 2022년 교육생들과 대학원생들의 가루차, 생활차 행다에는 박람회를 찾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지도에 나선 박숙희 지도사범은 “막상 지도하려니 알았던 것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평상시의 차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시간

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관객들이 차를 직접 접하게 도와주는데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이해자 수석부회장은 “늘 단합된 전남지부 회원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협회의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격려하시고 “(사)한국 차문화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추양미, 박소미 대학원생들이 가루차 체험을, 이경희(2021년 총무)를 비롯한 전남 4기 졸업생들과 김나라(전 총무)를 비롯한 현 교육생들의 수고로움으로 더욱 빛이 났다.

글_전문사범 박소미

제25회 하동야생차축제 티 브랜딩 대회

김형복 조화영 “죽풍향차” 은상 수상

제25회 하동야생차축제 티 브랜딩 대회가 지난 5월 8일 하동차박물관 광장에서 30여 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전남지부 김형복, 조화영 회

원이 출품한 “죽풍향차”가 은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는 하동지역에서 생산된 녹차와 발효차에 다양한 허브와 산야초를 브랜딩해서 전문가

심사와 소비자 심사로 이루어졌는데, 전남지부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었다. 김형복 회원은 “차 한 알을 선물 받는다는 건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래전 전남지부 지부장님으로부터 6g 소용주 월광백 한 알의 차를 받고 꺼내어 보고 아까워 차마 우려 마시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제25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티 브랜딩 대회에 ‘죽풍향차’라는 이름의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 축제장에 오신 분께 그 감동을 전하고자 한 알씩 드렸습니다. 죽풍향차 축제장에서 한 알의 사탕 모양의 차를 모두 비우고 한 송이의 죽풍향차 꽃으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죽풍향차 한 송이 대술에 부는 바람처럼 맑은

향기를 담은 차처럼 소박한 여유 차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영 차인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빛나는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글_지도사범 김형복



전남 교원 직무연수 대상 ‘원숙기 행복한 생활’ 진행 찾자리 연출과 공진단 체험 주관

전남지부는 지난 6월 30일, 7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원숙기 행복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차 이야기와 공진단 만들기 체험을 주관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차 마시기가 금지되어 매년 해오던 다도 연수를 못 하다가 재개되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난경 지부장의 차 이야기에 따라 자차법을 설명할 때는 위인숙 지도사범이 청태전(떡차) 찾자리와 떡차를 끓여 내어 교원들의 이해를 도왔고, 점다법 설명에서는 유성란 지도사범이 가루차의 차화를 현란하게 내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 포다법 설명에는 이정희 지도사범이 감농 녹차를 우려 녹차의 싱그러움을 맛보게 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공진단 만들기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여수를 통해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일선 학교에서도 다도 예절을 실시해 보겠다는 관리자들이 많아 이번 연수의 큰 소득이 되었다.

글_지도사범 나혜영

인성 8 덕목과 차문화 연관성 교육 펼쳐

여수 쌍봉초 전교생 300여 명 대상

전남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남 여수 쌍봉초등학교 전교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8 덕목과 차문화 연관성 교육을 펼쳤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차생활 속에서 인성 8 덕목을 찾아 적용해보고 차의 정신과 문화를 습득하며 손님맞이 행다법을 익혀 차를 우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전남지부는 학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해 눈높이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1~2학년은 바른 인사법과 몸가짐을 중요시한 예(禮)와 배려를, 3~4학년은 협동과 정직한 생활을, 5~6학년은 책임, 존중, 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다. 정병도 교장은(여수 쌍봉초) “이번 다례 교육은 차

행다법과 인성 8 덕목을 접목해 교육하니 신선하고 아이들이 훨씬 잘 받아 드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전남지부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글_전문사범 김경자



전 북 지 부

2022년 사범 종강식 가져

좀더 많은 신입회원이 사범과정을 함께 하길



지부장 이 림

전북지부는 2022년 7월 3일 사범 종강식을 했다. 6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한 학기를 열심히 달려온 사범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날 이림 전북 지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차 찾자리를 열어 함께 다담을 나누며 지난 한 학기를 회고했다. 강길임, 이정희, 전서령 다례 강사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다음 학기에는 좀더 많은 신입

회원이 사범과정을 함께해 주길 기대해 본다.



‘재미있는 인성 차놀이’ 전주 문정초에서 개최

2022 행안부 사업 후원 전북지부에서 진행

4월 21일. (사)한국차문화협회 주관, 행정안전부 후원 사업인 ‘재미있는 인성 차놀이’ 교육이 전주 문정초에서 시작되었다. 전북지부 전문사범인 손

혜란 사범이 주 강사로 활동하며, 20기 대학원생이 교육실습으로 보조강사를 하게 되어 강사로서 체험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무료 교육으로 진행

되는 이 사업 덕분에 아이들에게 차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좋았다.

아이들 또한, 좌식 찾자리가 불편하면서도 진중하게 수업에 임해주어 기특하기도 했다. 9번의 차수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차와 예절, 전통 다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익산 함열여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다례교육 도입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 다례 수업도 진행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하나로 익산 함열여고는 ‘차와 함께 배우는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학 입시 준비로 시간을 다뤄 공부하는 바쁜 고등학생들에게 다례교육은 다소 조심스러운 시도였지만, 학교장 이하 몇몇 선생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전서령 전문사범을 비롯한 20기 대학

원생들의 도움으로 5번의 다례 교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여러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여름 방학을 이용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특별 다례 수업이 추가로 개최되었다. 인성예절교육으로서 다례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주 문화재 야행, 전북지부 찾자리 마련

경기전 일대 시민이 함께하는 '치유의 차회'



전주 문화재 야행이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일대와 전라감영, 그리고 전주 웨딩거리에서 열렸다. 올해 전주 문화재 야행의 슬로건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이다. 경기전을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힐링 콘텐츠로 가득 채움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가운데, 경기전 내에서 '치유의 차회'라는 슬로건 하에 전북지부 회원들에 의

해 10개의 들차회 자리가 양일간 밤마다 열려 차와 함께 다담을 통해 행사장에 온 모든 이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여전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2년 만에 개최되어 반가움이 컸으나,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찾자리를 찾은 이들이 작게나마 차를 즐기며 위안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전북지부 한중 친선 바둑대회에 가루차 시연

- 바둑대회 참가 귀빈들에게 차 대접



전라북도 중국 4개 자매우호 지역인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 윈난성과 함께 전라북도-중국 자매우호 지역 온라인 친선바둑대회를 지난 7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전북지부 회원들의가루차 시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시연에는 전서령, 순은주, 소유미 사범이 연기하였

으며, 다악으로 가야금 연주에 김달 사범이 함께해 더불어 우리 음악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시연을 통해 한국문화 속에서도 가루차를 음용했던 우리의 전통문화가 중국인들에게도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충 북 지 부

육군 37사단 다도동아리 '호국충용사 티클래스' 운영

- 동아리 회원 4명 차예절경연대회 참가하여 수상



지부장 박숙희

충북지부는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 소재한 육군 37사단 장교 12명을 대상으로 티클래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김선경 전문사범이며,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우리 차문화를 알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차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제21회 전국직지차문화마당 차예절경연대회에 동아리 회원 4명이 참가하여 은상 1명, 동상 3명을 수상하기도 했다. '호국충

용사 티클래스'는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티클래스로 차를 통하여 군인들의 심신안정과 소통, 치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부 비대면

『제21회 전국직지차문화마당-차예절경연대회』성료

온라인 가족화합 차(茶)자리 수상자 발표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와 충청북도전통문화협회

가 주최, 주관한 '제21회 전국직지차(茶)문화마당 - 차

(茶)자리경연대회'가 코로나19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청주시, 청주시의회, 한국차문화협회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절의 중요성을 일깨워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 화합 차자리'를 주제로 6월 27일까지 예선을 거친 32팀이 신청,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학생부는 제외하고 청년부(靑), 중장년부(智)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인별 차자리에 대한 소개, 전체적인 조화, 예술성, 차 내는 법, 예절을 겨루되,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를 우려 함께 나누는 모습을 담아 경연을 펼쳤다.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예(禮)부, 지(智)부의 2개 부로 나누어 심사 후 수상을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우편 전달하며, 시상식 대신 <줌(ZOOM)>으로 함께하는 차자리>를 7월 15일(금) 20:00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대상 수상자 시상 및 소감 발표와 공로상 시상을 줌(ZOOM)으로 함께하며 차자리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숙희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함께 모여 차자리를 즐기며 우리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1회 전국직지차문화마당-차예절경연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예(禮)부]

대상(충청북도지사상): 박수빈(가천대학교 3)
금상(충청북도의회장상): 강승원(평택)
금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길은혜(대구)
은상(청주시장상): 박인희(서울)
은상(청주시의회장상): 이경진(서울)
동상: 조훈(원주), 이강우(서울), 박인준(서울),

박유은(서울), 서동우(서울), 몽흐줄(서울),
음혜진(청주), 최혜경(진천), 장우혁(증평),
김미정(청주), 오주현(서울)

[지(智)부]

대상(충청북도지사상): 김은희(청주)
금상(충청북도의회장상): 오정연(원주)
금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김복련(청주)
은상(청주시장상): 김종열(증평)
은상(청주시의회장상): 반성남(청주)
동상: 최선미(세종), 오주신(서울), 서유진(청주),
임미희(청주), 정운경(청주), 최현주(청주),
김현옥(청주), 김신영(청주), 이명숙(청주)
공로상(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서유진, 임미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공로상 수상자-임미희(좌), 서유진(우)



대상 수상자-박수빈(좌), 김은희(우)



박수빈-예 부문 대상 수상



김은희-지 부문 대상 수상

썬쁠여자중학교 인성예절교육 펼치다

생활 속 바른 예절 익히기, 바르게 차 마시는 법 등 수업

우리 지부는 8월 22일(월) 논산 썬쁠여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예절교실을 운영하였다. 학년별 4학급을 2시간씩 학급별로 2명의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맡아서 생활 속 바른 예절 익히기, 바르게 차 마시는 법, 녹차 티백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우리 차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진행된 수업은 주 강사로 박숙희 지부장과 김영희 상당지회장, 이병숙 청주지회장, 전근화 충북지부 사무국장이 맡았고 정운경, 윤기순, 임미희, 정미영 전문사범이 보조강사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차를 마시고 다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예절 바른 몸가짐을 익히고, 고마운 분을 생각하며 만든 티백과 짧은 손편지를 예쁘게 꾸며 봉투에 고이 담으며 자아를 성찰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

졌다.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위를 돌아보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바탕을 마련하는 귀중한 체험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보람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였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2·3급 •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1급(전문사범) 자격취득자 명단(26명)



1급-제22-404호 김*미 1급-제22-405호 노*련 1급-제22-406호 박*미 1급-제22-407호 박*희 1급-제22-408호 이*희 1급-제22-409호 주*경



1급-제22-410호 전*선 1급-제22-411호 황*주 1급-제22-412호 백*하 1급-제22-413호 이*희 1급-제22-414호 최*연 1급-제22-415호 고*영



1급-제22-416호 박*미 1급-제22-417호 정*경 1급-제22-418호 추*미 1급-제22-419호 김*숙 1급-제22-420호 김*림 1급-제22-421호 문*엽



1급-제22-422호 원*연 1급-제22-423호 유*혜 1급-제22-424호 차*옥 1급-제22-425호 임*희 1급-제22-426호 정*식 1급-제22-427호 정*영



1급-제22-428호 정*경 1급-제22-429호 국*숙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2급(지도사범) 자격취득자 명단(10명)



2급-제22-1074호 김*련 2급-제22-1075호 김*한 2급-제22-1076호 유*선 2급-제22-1077호 황*지 2급-제22-1078호 황*숙 2급-제22-1079호 구*남



2급-제22-1080호 박*옥 2급-제22-1081호 박*숙 2급-제22-1082호 신*숙 2급-제22-1083호 김*례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3급(준사범) 자격취득자 명단(12명)



3급-제22-951호 김*민 3급-제22-952호 박*흥 3급-제22-953호 이*정 3급-제22-954호 하*숙 3급-제22-955호 안*중 3급-제22-956호 이*정



3급-제22-957호 김*원 3급-제22-958호 옥*주 3급-제22-959호 배*영 3급-제22-960호 김*임 3급-제22-961호 김*원 3급-제22-962호 류*희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6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미	1급-제22-404호	14	전남	정 * 경	1급-제22-417호
2	광주	노 * 련	1급-제22-405호	15	전남	추 * 미	1급-제22-418호
3	광주	박 * 미	1급-제22-406호	16	전북	김 * 숙	1급-제22-419호
4	광주	박 * 희	1급-제22-407호	17	전북	김 * 립	1급-제22-420호
5	광주	이 * 희	1급-제22-408호	18	전북	문 * 엽	1급-제22-421호
6	광주	주 * 경	1급-제22-409호	19	전북	원 * 연	1급-제22-422호
7	서울제1	전 * 선	1급-제22-410호	20	전북	유 * 혜	1급-제22-423호
8	서울제1	황 * 주	1급-제22-411호	21	전북	차 * 옥	1급-제22-424호
9	서울제2	백 * 하	1급-제22-412호	22	충북	임 * 희	1급-제22-425호
10	서울제2	이 * 희	1급-제22-413호	23	충북	정 * 식	1급-제22-426호
11	인천	최 * 연	1급-제22-414호	24	충북	정 * 영	1급-제22-427호
12	전남	고 * 영	1급-제22-415호	25	충북	정 * 경	1급-제22-428호
13	전남	박 * 미	1급-제22-416호	26	광주	국 * 숙	1급-제22-429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5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미	제22-182호
2	광주	노 * 련	제22-183호
3	광주	박 * 미	제22-184호
4	광주	박 * 희	제22-185호
5	광주	이 * 희	제22-186호
6	광주	주 * 경	제22-187호
7	서울제1	전 * 선	제22-188호
8	서울제1	황 * 주	제22-189호
9	서울제2	백 * 하	제22-190호
10	서울제2	이 * 희	제22-191호
11	인천	최 * 연	제22-192호
12	전남	고 * 영	제22-193호
13	전남	박 * 미	제22-194호
14	전남	정 * 경	제22-195호
15	전남	추 * 미	제22-196호
16	전북	김 * 숙	제22-197호
17	전북	김 * 립	제22-198호
18	전북	문 * 엽	제22-199호
19	전북	원 * 연	제22-200호
20	전북	유 * 혜	제22-201호
21	전북	차 * 옥	제22-202호
22	충북	임 * 희	제22-203호
23	충북	정 * 식	제22-204호
24	충북	정 * 영	제22-205호
25	충북	정 * 경	제22-206호

•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1급 •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5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미	제22-146호
2	광주	노 * 련	제22-147호
3	광주	박 * 미	제22-148호
4	광주	박 * 희	제22-149호
5	광주	이 * 희	제22-150호
6	광주	주 * 경	제22-151호
7	서울제1	전 * 선	제22-152호
8	서울제1	황 * 주	제22-153호
9	서울제2	백 * 하	제22-154호
10	서울제2	이 * 희	제22-155호
11	인천	최 * 연	제22-156호
12	전남	고 * 영	제22-157호
13	전남	박 * 미	제22-158호
14	전남	정 * 경	제22-159호
15	전남	추 * 미	제22-160호
16	전북	김 * 숙	제22-161호
17	전북	김 * 립	제22-162호
18	전북	문 * 엽	제22-163호
19	전북	원 * 연	제22-164호
20	전북	유 * 혜	제22-165호
21	전북	차 * 옥	제22-166호
22	충북	임 * 희	제22-167호
23	충북	정 * 식	제22-168호
24	충북	정 * 영	제22-169호
25	충북	정 * 경	제22-170호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1급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6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미	제22-146호
2	광주	노 * 련	제22-147호
3	광주	박 * 미	제22-148호
4	광주	박 * 희	제22-149호
5	광주	이 * 희	제22-150호
6	광주	주 * 경	제22-151호
7	서울제1	전 * 선	제22-152호
8	서울제1	황 * 주	제22-153호
9	서울제2	백 * 하	제22-154호
10	서울제2	이 * 희	제22-155호
11	인천	최 * 연	제22-156호
12	전남	고 * 영	제22-157호
13	전남	박 * 미	제22-158호
14	전남	정 * 경	제22-159호
15	전남	추 * 미	제22-160호
16	전북	김 * 숙	제22-161호
17	전북	김 * 림	제22-162호
18	전북	문 * 엽	제22-163호
19	전북	원 * 연	제22-164호
20	전북	유 * 혜	제22-165호
21	전북	차 * 옥	제22-166호
22	충북	임 * 희	제22-167호
23	충북	정 * 식	제22-168호
24	충북	정 * 영	제22-169호
25	충북	정 * 경	제22-170호
26	광주	국 * 숙	제22-171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0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련	2급-제22-1074호
2	광주	김 * 한	2급-제22-1075호
3	서울2	유 * 선	2급-제22-1076호
4	아산	황 * 지	2급-제22-1077호
5	아산	황 * 숙	2급-제22-1078호
6	인천	구 * 남	2급-제22-1079호
7	인천	박 * 옥	2급-제22-1080호
8	전남	박 * 숙	2급-제22-1081호
9	전북	신 * 숙	2급-제22-1082호
10	전북	김 * 례	2급-제22-1083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광주	김 * 련	2급-제22-76호
2	광주	김 * 한	2급-제22-77호
3	서울2	유 * 선	2급-제22-78호
4	아산	황 * 지	2급-제22-79호
5	아산	황 * 숙	2급-제22-80호
6	인천	구 * 남	2급-제22-81호
7	인천	박 * 옥	2급-제22-82호
8	전북	신 * 숙	2급-제22-83호
9	전북	김 * 례	2급-제22-84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2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아산	김 * 민	3급-제22-951호	7	광주(명가혜)	김 * 원	3급-제22-957호
2	서울2	박 * 흥	3급-제22-952호	8	전남	옥 * 주	3급-제22-958호
3	광주(명가혜)	이 * 정	3급-제22-953호	9	전남	배 * 영	3급-제22-959호
4	광주(명가혜)	하 * 숙	3급-제22-954호	10	전남	김 * 임	3급-제22-960호
5	광주(명가혜)	안 * 중	3급-제22-955호	11	전남	김 * 원	3급-제22-961호
6	광주(명가혜)	이 * 정	3급-제22-956호	12	전남	류 * 희	3급-제22-962호

임원 및 전문사범 합격자 명단

• 임원-중국차티마스터 •

임원 중국차티마스터 자격취득자(21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경남	강 * 자	중국차-제22-11호	12	전북	이 * 림	중국차-제22-22호
2	인천	강 * 옥	중국차-제22-12호	13	인천	이 * 용	중국차-제22-23호
3	강원	김 * 숙	중국차-제22-13호	14	인천	이 * 숙	중국차-제22-24호
4	순천	김 * 애	중국차-제22-14호	15	서울제1	이 * 분	중국차-제22-25호
5	아산	김 * 임	중국차-제22-15호	16	인천	이 * 동	중국차-제22-26호
6	서울제2	문 * 남	중국차-제22-16호	17	서울제1	이 * 예	중국차-제22-27호
7	서울제2	박 * 옥	중국차-제22-17호	18	인천	조 * 아	중국차-제22-28호
8	충북	박 * 희	중국차-제22-18호	19	서울제1	최 * 희	중국차-제22-29호
9	서울제1	변 * 선	중국차-제22-19호	20	인천	최 * 원	중국차-제22-30호
10	전남	서 * 경	중국차-제22-20호	21	경남	황 * 경	중국차-제22-31호
11	전남	서 * 주	중국차-제22-21호				

임원 및 전문사범 합격자 명단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7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서울제1	이 * 예	인성교육1급-제22-207호	5	서울제1	정 * 임	인성교육1급-제22-211호
2	인천	강 * 옥	인성교육1급-제22-208호	6	서울제1	신 * 희	인성교육1급-제22-212호
3	인천	이 * 숙	인성교육1급-제22-209호	7	서울제2	류 * 영	인성교육1급-제22-213호
4	서울제1	장 * 자	인성교육1급-제22-210호				

•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합격자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4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인천	강 * 옥	어린이인성예절-제22-011호	3	서울제1	장 * 자	어린이인성예절-제22-013호
2	인천	이 * 숙	어린이인성예절-제22-012호	4	서울제2	류 * 영	어린이인성예절-제22-014호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합격자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7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전북	이 * 림	청소년인성예절-제22-011호	5	인천	강 * 옥	청소년인성예절-제22-015호
2	강원	김 * 숙	청소년인성예절-제22-012호	6	인천	이 * 숙	청소년인성예절-제22-016호
3	서울제2	문 * 남	청소년인성예절-제22-013호	7	서울제1	장 * 자	청소년인성예절-제22-017호
4	경남	황 * 경	청소년인성예절-제22-014호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5월~2022년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부회장 · 차영민 (10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박숙희 (1,500,000원)

지부장 · 조정미 (500,000원)

지부장 · 김미숙 (500,000원)

지부장 · 정경희 (500,000원)

지부장 · 서난경 (500,000원)

지부장 · 이정희 (1,000,000원)

이사 · 최정희 (1,000,000원)

이사 · 최지원 (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광주지부 · 김영미, 노혜련, 박수미, 박점희, 이현희, 주미경, 국경숙

경남지부 · 이정수

부산지부 · 김선희, 심현숙, 김행숙, 우미애, 김미경, 김정숙, 변인경, 이정옥, 이수련, 최영희

동수원지부 · 이강복

서울제1지부 · 이현금, 이명구, 장용자, 안진희, 전해선

서울제2지부 · 손현숙, 조상숙, 박지윤, 정상임, 김구환, 송향숙, 안순금, 정순영, 안난희, 장호순, 최지은, 류소영, 조상철, 이경숙, 백운하, 이금희

아산지부 · 황유지, 황명숙

인천지부 · 구경남, 박영옥, 신은주, 마숙경, 최채연

전남지부 · 남택선, 고선영, 박소미, 정미경, 추양미

전북지부 · 문정엽, 유지혜, 김찬림, 김미경, 조 경우, 소예령, 안지은, 남치풍, 전순경, 오광주, 김경순, 박기득, 박점복, 김명미, 한경하, 박미자, 김영순, 김금남, 김달, 육정화, 정점순, 이영순, 김종필, 김희숙, 박순자, 박철순, 최유순, 손영란, 김미혜, 임은혜

충북지부 · 홍경숙, 이원균, 김미정, 오정연, 한영선, 이주현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2년 5월-2022년 8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5월 통장 입금

순천 · 김여옥, 이미란, 주혜란, 조혜숙, 나원희 / 전남 · (남택선) / 충북 · 홍경숙

6월 통장 입금

부산 · 심현숙, 김미경, 우미애, 최영희, 이수련, 김행숙, 김선희, 이정옥, 변인경,
김정숙 / 서울제1 · 이명구, 이현금 / 인천 · 최지원 / 전북 · 조경우(소예령), 이영순,
박철순, 박점복, 최유순, 김미혜, 김금남, 정점순, 육정화, 임은혜, 김 달, 한경하,
박순자, 손영란, 안지은, 김중필, 김명미, 남치풍, 김민중(영순), 전순경, 김경순, 김
미경, 박미자, 김희숙, 박기득 / 충북 · 이원균, 오정연, 김미정, 이주현, 한영선

7월 통장 입금

서울제1 · 안진희, 장용자 / 서울제2 · 정순영, 안순금, 류소영, 송향숙, 손현숙, 박
지윤, 장효순, 정상임, 최지은, 조상숙, 조상철(이경숙), 김구환, 안난희 / 인천 · 마
숙경

8월 통장 입금

광주 · 김보련, 김용한, 이현희, 주미경, 박점희, 김명미, 박수미, 노혜련, 국경숙 /
대구경북제1 · 황혜경 / 서울제1 · 황은주, 전혜선 / 서울제2 · 유영선, 백은하, 이
금희 / 아산 · 황명숙, 황유지 / 인천 · 박영옥, 구경남, 최채연, 신은주 / 전남 · 박인
숙, 고선영, 정미경, 추양미, 박소미 / 전북 · 신희숙, 김명례, 안진영, 김찬림, 문정
엽, 유지혜

증문자 憎蚊子

다성 초의선사, 범해각안 선사로 이어지는 다송자 금명 보정
(1861~1930) 선사는 혼돈의 시대에 살면서 1,0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그중 tea에 대한 시가 100여 수를 남기고 다선 일향의
소박한 수행 삶을 혼신으로 살아온 선사로 한국 차 문화계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크다.

曾聞麻谷有蚊家 삼배 밭에 사는 모기를
招募松軍古道遮 술가지 배어다가 연기 피워 막으리
殿角借風珠網映 처마 끝엔 거미줄로 망을 치고
屋頭掛帳布簾華 문 앞에는 주렴을 드리웠건만
利嘴充腸毫末血 털끝마다 맺힌 피, 버린 주둥이로 배 채우고
長平坑卒一杯茶 줄개들은 늘어져서 한잔 차를 마시네
傳檄今宵烟陣合 격문 돌려 모기불 진을 쳐서
將壇旂敵凱城斜 오늘 밤엔 반드시 물리치고 말리라.

이 시는 《금명 보정 다송시고 권3》에 나온다. 스님은 普照國師의 牧牛家風을 선양하며 차를 즐기는 다송
자 금명 보정 선사는 한여름 밤차 한 잔 두고 모기와의 茶談 이야기이다.

모기들은 벌써 피로 배를 채우고 한 잔 tea로 입가심까지 한다. 한여름 모기와의 전쟁이다. 모기가 얼마나
미웠으면 제목이 증문자憎蚊子 이겠는가?

삼복의 한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시, 다송자 금명 보정 스님의 tea에 미친 禪師답다. 금명 스님의 선방 모습
이 해학이 그려진다.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통다송, 다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문도를 읽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鎭冥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鎭冥寶鼎의 禪茶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